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성경:마가복음 7장  
20-30절

- 20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 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 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 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 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 28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 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막 7:20-30)

가장 영적인 것은 말이며, 3차원에서 4차원적 요소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말’이다.

‘말’은 전자기적으로 녹음하거나 재생할 수도 있지만, 그 영향력 만큼은 3차원적으로 가늠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말도 뿌리가 있는데, 말의 뿌리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4차원적인 요소는 생각이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본 사상은 성악설. 사람은 본래가 악하다는 것.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은 악하다.  
예수님도 사람을 더럽히는 모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20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독질과 살인과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까?  
그것은 또 다른 4차원적 요소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있다. 이것 때문에 악하고 더러워진 사람에게 가능성이 주어진다.

사람은 사랑한다.

사람은 악한데, 아무리 악해도 그 악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게 하지 못했다. (악한 생각 때문에 미움이 날마다 용솟음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은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미움은 거짓이지만, 사랑은 진실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

또 사람은 사랑하면, 미래가 보인다. 그것이 '소망'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기 안에 사랑이나 소망들을 간직하는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즉, 사악한 생각 때문에 항상 말에서 저주가 튀어 나오는 존재가 사람이지만, 그 악한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붙들고, 설령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악하고 더러워진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뜻이고, 그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이라도 희생하겠다는 뜻이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뜻이고, 그 죄의 댓가를 대신 치르겠다는 뜻이 아닌가?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10:45)

우리는 약간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졌지만, 너무도 아까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왜?

완전히 망가졌는데? 악하고 더러워졌는데?

그가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가 ‘아버지, 나를 도와 주세요....’라고 하면 아버지는 그보다 몇 곱절의 눈물을 흘리신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 악의 중독을 끊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그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나, 그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나, 그를 용서한 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한 생각을 발휘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역을 업신여기기도 한다.

너무 쉽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몰래 도둑질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사랑은 무조건 로멘스라고 여긴다. 분명히 불륜이면서도 세상은 악하고 더러워서 자기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딱 한가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진실하다. 자식은 아버리를 반역할 수 있어도,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다.

## (본문 해설)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떤 은혜라도 베풀 것을 거절하셨다.

-응대하지 않으신게 아니라, 아주 불쾌하게 응대 하셨다. 분명하게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내가 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너는 사람이지만, 개와 같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야 할 은혜가 너에게 주어질 수 없다.

-사람도 짐승과 같은 동물이라 짐승처럼 살아갈 수는 있다. 그러나 짐승이 짐승처럼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간다.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사람을 초월해서 살아야 한다.(4차원적으로) 그래야 사람다움다.

-그래서 가장 약한 아이가 상처를 받는다. 가장 연약한 딸이 공격을 받는다.

-이 여인도 자신이 아프다면 여기서 포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병이 들었으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을 것이다. 개 같다는 한 마디가 자신의 삶을 그대로 어김없이 묘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소문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여 왔는데, 와서 보니 진짜 선지자였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요술이 아닌 진짜 기적을 베푸는 자임을 깨닫게 된다.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앞에서 자존심이나 체면을 차릴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 앞이라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는가?

-웁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껏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 어린 딸이 너무 불쌍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딸을 고쳐 주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제 딸에게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한다. 내가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딸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 죄악을 이겨내는 말을 해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주도면밀한 모르드개   말씀:에스더 3장

1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3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4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5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7 아하수에로 왕 제십이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8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9 왕이 윗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10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11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12 첫째 달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13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이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4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15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에3:1-15)

- 역사적으로는 아하수에로왕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왕.(300)
- 아각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
- 모르드개는 유다 사람으로 성문지기 장수
- 모르드개는 정치적 야망이 있었으며, 오래도록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왔다.
- 신앙교육에 철저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도우심을 기다렸다.
- 하만이 매우 용의주도한 사람이라,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 돌진하는 자였다.
- 아마도 그의 동료로서 빅다나와 데레스가 있었지 않을까?
- 아무튼 하만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모든 모략을 동원하는 자였을 것이다.
- 그는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고 모든 대신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절을 하도록 계락을 꾸몄다. 이는 그가 왕권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그는 또 자신에게 베풀어질 것을 예상하고 왕의 옷과 왕의 수레를 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여긴 사람이다.
- 이는 그 생각이 왕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아하수에로가 그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 에스더는 이점을 이용한다. 하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왕의 힘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왕으로 하여금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

이 그를 제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알았을 것이다.

-모르드개에게 있어서 에스더는 자신의 정치적 승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된다.

-비밀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반역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데 모르드개는 에스더를 이용해서 왕의 친위대에 즉각 이 사실을 알려서 모반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이 너무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서 오직 왕의 일기책에만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후일 모르드개를 단숨에 총리가 되게 하는 일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모르드개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려야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하만 때문에.

-하만은 이때에 유대인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하는 수 없이 모르드개는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살릴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서 정권을 확고히 하려고 한다.